

# “전주시민과 함께 세계도시로 나가자”

### 전북자치도·전주시, 2036 하계올림픽 국내후보지 선정 우범기 시장 “전주올림픽 유치 총력 다할 것” 포부 밝혀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한 입장을 지난날 28일 내놓았다.

먼저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이 답대할 도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함께 해주시는 전주시민 여러분과 체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뛰어난 비수도권 연대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올림픽 개최 모델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당당히 국제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나아가 지방도시

연대 전략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풍부한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 올림픽을 준비하는 등 2036 전주올림픽 유치를 향해 한자게 뛰겠다고 다짐했다.

우범기 시장은 “2036 전주올림픽 유치 도전은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위대한 전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전주를 넘어 세계도시로 나아가 수 있도록 전북도와 함께 대한체육회 및 정부와 협력하며 2036 전주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한 입장을 지난날 28일 내놓았다.

## 덕진구청 카페, 노후공간 환경개선 ‘새단장’

### ‘I got everything’ 덕진구청점,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조성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심규문)는 청사 1층에서 운영하는 카페 ‘I got everything’ 덕진구청점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다.

덕진구청은 2017년부터 ‘열린 청사’의 모습으로 1층 로비에 청사 방문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인 카페와 갤러리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카페 이용객들은 중앙통로와 구분 없는 공간, 딱딱한 의자 등 카페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으며, 8년간 같은 모습으로 노후 공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공간 분리와 나무 형태의 새로

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사를 보다 더 밝고 따뜻하게 바꾼 것이다.

청사 1층 로비와 갤러리 공간과의 통일과 노후화된 물품 교체가 주 내용이며, 이와 함께 △전기공사(조명) △수장공사(MDF작업, 시트지) △도장공사 △기구공사 등 부분 공사가 진행됐다.

심규문 덕진구청장은 “청사 내 카페

의 환경개선으로 덕진구 주민들의 편안한 방문과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아울러 직원복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페 ‘I got everything’ 덕진구청점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증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017년 4월 개소하여 사단법인 전주시장애인부모회에서 8년째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증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설공단, 수영 강습 ‘졸업제’ 도입

### 더 많은 시민에게 강습 기회 제공 위해... 초급반 12개월 후 졸업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수영 강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영 강습 ‘졸업제’를 도입했다.

지난달 28일 공단에 따르면 올 1월부터 2개 수영장(완산수영장, 덕진수영장)과 3개 복합시설(도내기생, 라온, 예코)에서 수영 강습 ‘졸업제’를 시행 중이다.

수영 강습 ‘졸업제’는 초급 강습반에서 12개월간 강습을 받은 수강생들을 ‘졸업’시키는 제도다.

졸업생은 향상된 실력을 바탕으로 고급반 또는 연수반에서 강습을 계속 받거나 자유롭게 개인 수영을 즐길 수 있다.

졸업생을 배출한 강습반은 폐지되며 이후 다시 신규 초급 강습반이 신설돼

새 강습생을 받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공단이 이같이 제도를 개선한 것은 강사 인원은 한정돼 있고, 강습 장소는 제한적인데 초급 강습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강습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선 초급 강습반을 신설해야 하는데 기존 초급 강습반이 계속 운영되는 한 새로 강습반을 만들 수 없다.

새롭게 수영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은 기존 강습반이 통폐합되기만을 속절 없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공단은 ‘졸업제’를 시행하면서 더 많은 강습생을 수용하기 위해 강습 정원도 조정했다.

고급반과 연수반은 정원을 30명에서



전주시설공단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수영 강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영 강습 ‘졸업제’를 도입했다. 전주완산수영장 사진

40명으로 10명을 늘리고, 강습 폐강 기준도 강습생 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5명 늘려 신규 강습반 신설이 용이하도록 했다.

방현주 수영장부장은 “졸업제 시행으로 매달 신규 강습반 개설이 가능해

져 수영 강습을 받기 원하는 시민들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수영장 이용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영장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북병원회, 제51차 정기이사회

### 지난해 결산보고·올해 사업 계획·예산 심의 등 가져

전북병원회(회장 신홍식)는 지난날 27일 제51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2024년도 결산보고와 함께 2025년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김동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이사회는 먼저 전차이사회 및 그동안 진행된 회무보고와 함께 2024년도 결산보고를 받고 이를 이의 없이 승인했다. 이어 전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2025년도 사업계획(안)과 1억5433만원 규모의 새 예산(안) 역시 이의 없이 승인해 오는 6월로 예정된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사회는 △전북병원회 임원 병원 간 교류 활성화 △증간관리자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 △정보교류 및 공유 등 2025년도 사업계획안과 행사 일정, 회원병원들의 연회비 조정의 건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토의를 마친 이사회는 석정팔과 박병원 원내연 이사장을 전북 병원회 상임이사로 위촉하는 위촉식을 가졌다.

신홍식 전북병원회 신임 회장은 “건강한 국민, 신뢰받는 병원,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회원 병원간 교류활성화로 협회의 방향성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회원 병원간 관리자 역량 강화에 협회 차원의 포상과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는 지난날 28일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 전주시의회,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논의

###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와 시정 방향·행정업무 공유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지난날 28일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와 주민자치 활성화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민철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협의회 임원들이 참석해 위원회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남관우 의장은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묵묵히 애쓰는 주민자치협의회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북경찰청, 3·1절 폭주족 단속... 80건 적발

전북경찰청은 3·1절 폭주족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은 지난날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주·야간 단속 및 예방근무를 도내 주요 지점 일대에서 진행했다.

안행순철차와 싸이카 등을 배치해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음주·무면허 1

건, 신호위반 16건, 중앙선 침범 4건, 안전모 미착용 등 59건으로 모두 80건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향후 기념일마다 되풀이되는 폭주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인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